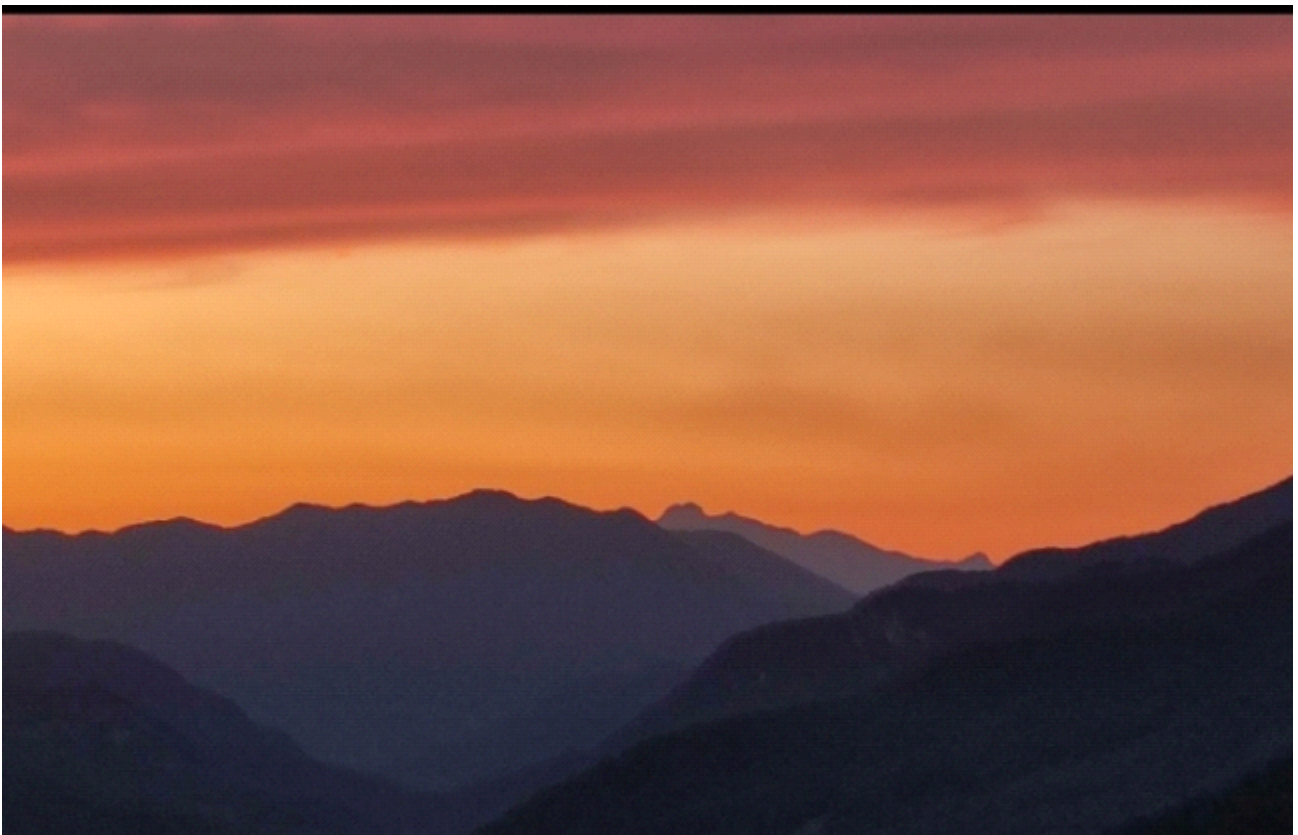


한국작가회의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부천시지부

부천작가회의 소식지

2022년
7~12월
통권 06

발행인/최현규 편집인/최금왕 편집주간/임은주 14548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706호(중동, 탑프라자)



이연이순(怡然理順)



가는 2022년도 감사찬!
오는 2023년도 감사찰!

최금왕(동화작가)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시지부 사무처장



목 차

2022년을 보내며 || 회장 최현규 03

6호에 부치는 글 || 부회장 한성희 04

특별 초대시 || Appreciation of poetry 2022년 부천문인 단편선 시감상 05
이천명
양정동
박미현

이 달의 작품 || 디카시 - 최인순 08
정창배
시 - 안금자
수필 - 선동기

제26회 부천시민시조·시 전통백일장 대상작 - 박혜진 13
오민하

특별기획 || 제32회 《복사골문학상》 제3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14
제32회 복사골문학상 수상자 - 황정순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 양정동

회원 동정 (새책, 수상, 전시회 및 기타) 18



2022년을 보내며

벌써 연말입니다. 언제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지요.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올해 작가회의는 꽤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어느 해보다 두드러지게 올해 우리 부천작가회의 회원분들의 작품집이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 작가님들의 피땀이 새겨있는 작품집들을 보며 새삼스레 부천작가회의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강정규 선생님과 구자룡 선생님 두 원로분들의 변함없는 문학의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로분들의 지도와 몸소 보여주시는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문학기행도 다녀왔습니다. 맛있었던 점심이 기억나는군요. 시조백일장도 중앙공원에서 성대하게 열었고요. 송년회도 참 오랜만에 멋지게 치렀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도와주시는 회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작가회의의 사소한 활동들이 언젠가 부천의 문학 역사 아니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학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자랑스럽고 즐겁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사는 삶이 결코 혼자 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작가회의 회원분들 모두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심한 듯 시간이 흘러만 가네요. 날이 매우 춥니다. 또 금방 봄이 오고 곧 따뜻해지겠지요. 세상사 늘 그렇듯이요. 문우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최현규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장 전 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장 및 소설부문 심사위원. 전 동국대학교교수. 제21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제6회 올해의 예술가상 수상(문학부문) 제26회 경기도 문학상 본상. 동요<노을> 작곡. 장편소설 『모스』 전6권. 『해인의 비밀』 3권. 문학평론집 『문학, 씨줄과 날줄』 단편소설 『즉흥환상곡』 외 다수.



이 계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종되었던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 모습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긴 끈으로 꼰꼰 묶여있던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 앉아 수다 삼매경에 빠져있는 엄마들 미소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듯 거리로, 콘서트장으로 전시회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표정들에서 해방감과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아마 단풍 든 가을산도, 하얀 겨울산도 인산인해를 이루겠지요.

3년 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서로에게 누가 될까 봐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만 동동거렸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처럼 동인들 간에 소식도 뜸해지고, 비대면 zoom을 통해 겨우 안부를 물어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그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어깨 짝 펴고 활짝 웃으며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올 가을엔 3년 만에 문학기행도 가네요. 문우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가슴 뻥 뚫리도록 계절을 만끽하면서 알밤 같은 글들 마음 가득 담아 오시길 소망합니다.

한성희 수필가 계간「수필시대」등단. 제4회 부천신인문학상 당선(수필). 2006 ~ 2014년 부천작가회의 주최 ‘목요문학나들이’ 진행. PEN문학 <동생의 전원일기> 발표. <경북도내 여행 체험기>입선. 제2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수상. 수필집 『가시연빅토리아』 『그곳에 가면』

부천창의도시는 매년 우수한 국내 작품을 선정하여 영문 번역. 출간합니다. 2022년 부천문인 작품 중 부천작가회의 이천명, 양정동, 박미현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 초대시 || Appreciation of poetry 2022년 부천문인 단편선 시 감상

원미산의 가을

Autumn in Wonmisan

이천명 Lee Cheon-myeong

가을
햇살 아래
자라난 기쁨이

Toys
grown up
in autumn sunlight,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나하나
여물어 가듯

As if ripening
one by one
in a long-drawn-out waiting,

계절의 빛깔처럼
곱디고운 꿈을 꾸며
은 세상을
빨강게 물들인다

Dreaming sweet dreams
like the colors of the seasons,
they dye
the whole world red.

산은
모든 것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고

The Mountain
makes everything
grow
little by little,

넓고 높은
창공을 향해
오르다 보면

and as they climb up
towards the vast,
high sky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다

It affects
the most precious things
closest at hand.

이천명 시인 <수필과 비평> 신인문학상. <창조문학>신인문학상. 제23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저서 : 에세이 <그리움 그대에게><섬, 그리고 자유>. 시집 <노을로 오신 어머니> <희망,
원미산을 품다> 현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감사. 복사골문학회회원.

바다가 그리운 저녁

One evening, missing the sea

양정동 Yang Jeong-dong

늦은 저녁
외출에서 돌아오니
섬에 사는 누이가 보내온
생선 상자 하나가
현관 밖에 털퍼덕 앉아있다
비릿한 고향 바다에서
세월로 포장 된 누이의 모습
울컥,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어릴 적 누이 따라 갯가에 가면
바다는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바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었고
저녁 하늘엔 별도 총총했지

Coming back home late one evening,
I find a box of fish
sent by my sister who lives on an island,
lying outside the front door.
The image of my sister wrapped in time
comes with tears and longing
from the fishy home sea.
In my childhood, when I went to
the shore with my sister,
the sea would smile warmly,
the wind would comfort us,
the stars would twinkle in the evening sky.

이제, 흰머리 된 소년
보글보글 생선찌개 끓는 소리에
저녁 식탁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앗 따 메! 누이,
고향 바다
허벌 나게 보고 싶소.'

Now, at the sound of the fish boiling,
the grey haired boy
puts a lantern on the dinner table
and phones to his sister.
'Ah! sister,
I so long to see,
our hometown sea.'

가을 원미산

Wonmisan in Autumn

박미현

Park Mi-hyeon

어둠을 뒤집어 쓰고
속울음을 운다

Covered with darkness,
it weeps inwardly.

그도 때론
세상을 피하지못해
홀로 운다

Unable to escape the world,
it too sometimes
weeps alone.

울어야만 실컷 아파야만
치유가 되는 통증
불치의 병인 줄 알면서도

It has to weep, has to hurt so much,
for its pain to heal,
even though it knows it's an
incurable disease

이 넓은 세상에서
함께 울어줄 한 사람
만나지못해

Unable to meet a single person
to cry with it
in this wide world,

이를 악물고
불 켜진 창들을 내려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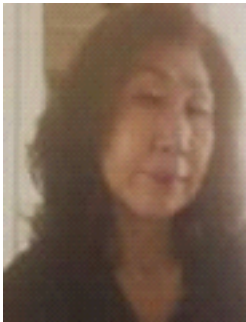
It clenches its teeth
and looks down at the lit windows.

봄을 기다리며

이불 뒤집어 쓰고

가을 잠을 자면

겨울이 꿈을 꾀다



최인숙 디카시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시부 부천디카시협회 회원, 양성수 디카시전시회 초대 작가. 제3회 부천디카시협회 신인상 수상.

이 달의 디카시 || 정창배 (디카시인)



손톱보다 작았던

2년 넘게 미동도 없더니
어느날
어메이징!

정창배 시인 부천디카시인협회장.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디카시 회원.

별 그리고 시

밤하늘 저 별들은
어둠이 써놓은
한 편의 詩

마음 흐르는 곳으로
길을 내며 걷다가
발끝 아픈 그 길 어디쯤에서

눈물 한 줌
빛 한 줌
뿌리며 눌러쓴
빛나는 문장

어둠이 없었다면
빛나지 않았을 별
쓰이지 않았을 詩



안금자 시인 부천시인협회원. 부천작가회 감사. 부천시 현충탑 공모전 당선. 복사골 문학상 수상. 올해의 예술가상 수상. 시집 『아버님의 잣나무』 『꿈꾸는 휴화산』 『우회전하고 싶다』 『아름다운 이름』 『갯그렁, 그 여자』



할아버지의 육아 일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한 동안 육아 일기를 쓴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눈동이를 뿜는 질문이 오곤 하는데, 손녀의 육아 일기라고 대답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자식들에 대한 육아 일기를 쓸 생각을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때는 집보다는 회사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한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사는 딸이 복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은 돌도 지나지 않은 손녀를 누가 돌보느냐는 것이었다. 딸의 시대 어른들도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어려웠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 그나마 ‘백수’에 가까운 내가 적임자였다. 어린이 집에 가기 전 1시간 반, 어린이 집에 다녀온 후 딸이 퇴근 할 때까지 2시간을 맡아 주기로 했다. 손녀를 혼자 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간식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다 보니 남자가 아닌 제3의 성(性)을 갖게 된 것 같았다. 아침이면 딸 집에 가서 손녀를 유모차에 태워 우리 집으로 데려 오는데, 1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건널목도 건너게 되고 버스 정류장도 지나게 된다. 손녀를 위한 물건들을 담은 딸의 배낭을 메고 유모차를 미는 내 모습을 예전에 상상이나 한 적이 있었을까? 출근 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에는 불편했다.

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내 일을 하다 문득 매일 조금씩 바뀌는 아이의 모습을 머리 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도, 서른이 넘은 아들도 기억 속에는 어느 날 유치원생으로 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이들의 유아 시절에 대한 기억은 아주 작은 파편으로, 그 것도 몇 개 안되니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었기에 손녀에 대한 것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졌다. 결심이 서자 바로 내 블로그에 ‘할아버지의 육아일기’ 라는 코너를 만들고 육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일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내게서 일어났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건널목을 건너다 보니 그 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분들과 신호 대기 중에는 아침 인사도 나누고, 며칠 보이지 않으면 그 동안의 안부도 묻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손녀도 그 분들과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곤 했다. 오후에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를 산책 삼아 돌아 보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태우고 가는 젊은 엄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몇 개월이냐고 묻게 되었고 동네 소아과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 그리고 약국의 약사들과도 편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 주면 ‘동네 할아버지 다 되었다’ 라고 하는데, 손녀가 내게 새로운 인간 관계망을 만들어 준 셈이었다.

사실 처음 ‘할아버지’ 라는 호칭으로 불렸을 때 그 호칭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내가 얻은 호칭들은 모두 내 노력의 의한 것이었다. ‘아빠’ 가 된 것도 결혼에 의한 것이었고 회사에서 진급을 하며 붙는 직위도 내 의지에 의한 결과였다. 그런데 ‘할아버지’ 는 딸이 손녀를 낳으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니까 어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나 스스로 ‘할아버지’ 라고 말하곤 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손녀의 포로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보면 손녀가 펼치는 마법의 힘이 대단하다.

큰 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 손녀가 어린이 집을 다니게 되면서 등,하원만 시키고 있어 육아 일기를 잠시 쉬고 있지만 조금씩 욕심을 내는 일이 하나 생겼다. 훗날 내가 이 곳을 떠나도 내 블로그는 살아 있어서 손녀가 자신의 육아 일기를 읽어 보고 한 때 할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구절초 꽃잎처럼 작고 하얀 얼굴의 손녀들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욕심을 키우고 있다. 욕심이 커가는 동안 무척 행복할 것 같다. 나중에 둘째 손녀가 자신에 대한 일기는 왜 없느냐고 따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 잠시 멈춘 육아일기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번에는 둘째 손녀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선동기 수필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한국작가회의 부천시부 회원
저서 『처음 만나는 그림』 『나를 위한 하루 그림』 『그림 속 소녀의 웃음이 내 마음에』

제26회 부천시민시조·시 전통백일장 대상작

☐ 제26회 부천시민시조·시 전통백일장/부천작가와의 만남

시제: 가을날

일시: 2022. 9.17(토)~18(일)

장소: 부천중앙공원

〈일반부〉

가을날

박혜진

그토록 가슴 아팠던
여름날이 가고
가을을 만났다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여행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 되었다

내 아버지

이제는 다시 못 볼
가을날의 별이 되셨다

〈학생부〉

가을날

오민하

가을이 왔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소슬바람

울긋불긋 물든 후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낙엽들

동글동글한
배도
노랗게 익어간다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가을이 된다

심사위원 : 일반부 - 강정규. 구자룡. 김원준.

학생부 - 안금자. 김미자. 이순정

제32회 제32회 《복사골문학상》 제3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축하합니다!

제32회 복사골문학상 || 황정순(수필가)

수필집 『노란 밥꽃』 선정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 양정동(시인)

시집 『바다가 그리운 저녁』 선정

부천출신 수주 변영로시인과 소향 이상로시인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한 《복사골문학상》과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작가들의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올해의 부천작가상》이 각각 32회와 4회를 맞이했다.

지난 11월 15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17일 부천문학도서관 회의실에서 심사를 하고 11월 30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운 시와 따뜻한 수필은 희망이다
- 황정순과 양정동 작가의 문학세계 엿보기

문학의 대상은 모든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그 발견속의 소재로부터 출발한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식의 차이로 표현이 달라지고 이 표현은 문학의 깊이를 결정하게 된다. 문학을 창작하는 일련의 과정은 작가가 ‘지각知覺’을 가진 상태에서 대상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직관된 언어를 다시 ‘사유’를 거쳐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필가 황정순은 복사골문학회 창립과 더불어 입회를 한 원로(?)다. 1991년 부천에서 처음 열린 여성백일장에서 입선하여 ‘흰모래’ 수필동인 식구가 되었다. 그동안 외로웠을 텐데도 그녀는 끝없는 바다의 등대가 되었다. 2010년 첫 번째 수필집 <예지몽>, 그리고 2022년에 출간한 단단하면서도 애뜻한 두 번째 수필집 <노란 밥 꽃>은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문학적 요소가 깊기 때문이다.

30년간 택시 운전기사였던 양정동 시인은 1996년 복사골문학회에 입회했다. 그는 얼마 전 심장 판막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 후 택시 운전대 대신 상상의 세계를 운전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기억을 끄집어 낼 삶의 세계의 문을 다시 열어가고 있는 시인이 되었다. 유고시집이 될 뻔한 다섯 번째 시집 <바다가 그리운 저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양정동 시인이 앞으로의 삶이 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어, 늦었지만 황정순 수필가에게는 제34회 복사골 문학상을, 양정동 시인에게는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을 드리기로 했다.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기를 기원한다. 이 두 작가가 세상에 있는 한 문학은 희망일 것이다

심사위원-구자룡(시인), 강정규(동화작가), 민충환(문학평론가)

수상 소감



첫 번째 수필집 『예지몽』을 출간하고, 12년 만에 두 번째 수필집 『노란 밥꽃』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집 거실을 서성이다가 몇 바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평탄한 길일지라도 나에게서는 돌아서 언덕을 오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필이 좋아서 읽었고, 쓰고 싶었습니다.

문학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복사골 문학회에 입문 당시 제 나이 서른 즈음이었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었을 때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일찍 문학을 해보겠다고 들어왔구나, 내년이면 제 나이 예순을 찍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문단의 역사도 변했고, 제 얼굴은 눈도 찌그러지고 머리는 온통 하얗습니다.

때로는 쉬엄쉬엄 느리게 걸었지만 수필 쓰기 30년은 제 청춘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야 문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이 영글어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기에 선배님들이 받은 복사골 문학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동안 작가회의 선생님들과 문우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지켜 봐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황정순 수필가 전 부천시부 수필가협회회장. 부천작가회의 회원. 흰모래 동인. 복사골 시민 기자. 흰모래수필 동아리지도. 제34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수필집 『예지몽』 『노란 밥꽃』



수상 소감

수상 소식을 듣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시를 쓴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시다운 시를 쓰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아쉬움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울에 아는 분의 소개로 지인을 알게 되어 공부를 더 하고 보니 훨씬 좋은 작품이 작성된 것을 보고 역시 공부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살아온 삶의 여건이 너무나 기구하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오는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 오다보니 이루 말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위해 내 나름대로 숭한 노력을 하였으나 역부족이 된 것은 내 자신이 겪어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시가 생활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겪은 느낌을 갖고 쓰다 보니까 낮은 단계의 삶의 느낌을 많이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를 써야 할 소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젠 가는 차곡차곡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써 보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의 경험을 갖고 쓴 시인만큼 깊은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심사 위원님 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정동 시인 1996년 『문예사조』 등단. 부천시인협회회원, 복사골문화회 특별문학상 수상.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수상. 건국경제신문예술문학상 수상. 경기도지사 시문학상. 시집 『다도해(多島海)』 『나는 여기에 있다』 『흔들리는 것, 그것이 존재다』 『바다가 그리운 저녁』

【 행사 】

☑ 제26회 부천시민시조·시 전통백일장 / 부천작가와의 만남

일시: 2022. 9.17(토)~18(일)

장소: 부천중앙공원



☑ 부천작가회의 임원회의

일시 : 2022. 9. 2. (비대면 ZOOM)

안건 : 2022년 『부천작가』 발간, 문학기행,
송년회 및 총회

☑ 구미리내 문학특강(문학 포지션)

강사 : 구미리내 (문학박사)

일시 : 2022. 9. 1 ~ 11. 30 매주 수요일

장소 : 복사골문학도서관



☑ 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 제2회 전국시낭송대회

일시 : 10월 9일 13:00

장소 : 복사골아트홀

참가 : 허윤설, 유국환, 김승동, 박용섭, 이천명, 김옥순, 이재학.

☑ 디카시 동인전 (부천디카시인협회)

일시 : 2022. 7. 22 ~ 7.27

장소 : 네모갤러리(심곡천)



☑ 양성수 디카시전

《디카시, 삶에 장착하다》

일시 : 2022. 10. 1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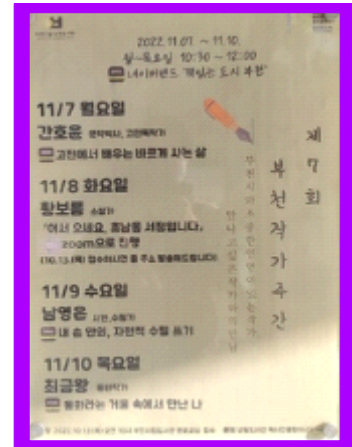
장소 : 화성시 원플갤러리

☑ 제7회 부천시 부천작가초청 릴레이 강연

일시 : 2022. 11. 7 ~ 11. 10

장소 : 상동도서관 및 라이브송출

강연 : 11월 7일 간호운 (고전독작가)
11월 10일 최금왕 (동화작가)



☑ 문이령(동화작가)

부천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2022년 문학기행

일시 : 2022. 11. 12.

장소 : 이문구 생가 및 보령시 일대



☐ **제37회 복사골문학상.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마 감 : 2022년 11월 15일, 오후 12시까지

심 사 : 2022년 11월 25일, 부천문학도서관

발 표 : 2022년 11월 30일, 카페 공지

제32회 복사골문학상 || 황정순(수필가) 수필집 『노란 밥꽃』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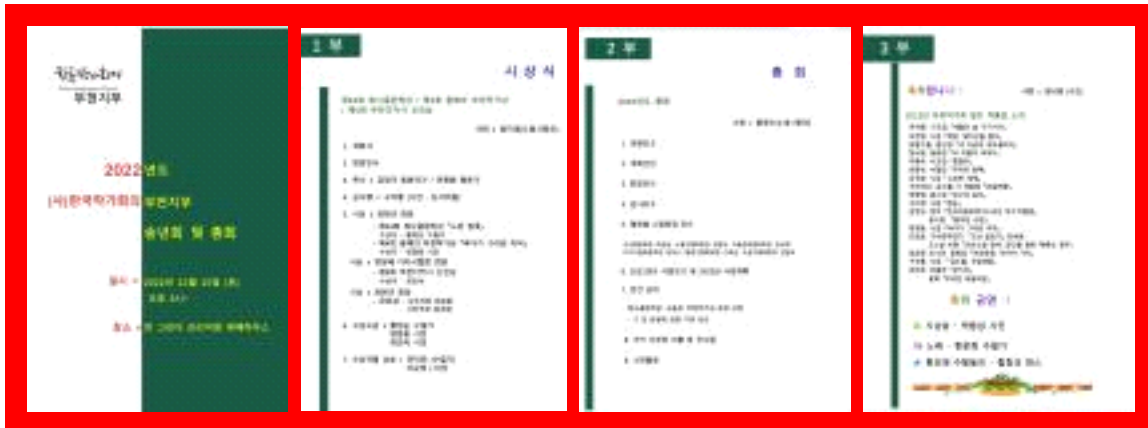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 양정동(시인) 시집 『바다가 그리운 저녁』 선정

시상식 : 2022년 12월 10일 송년회 및 총회

☐ **2022년도 송년회 및 총회**

일시: 2022. 12. 10(토) 오후 3시~

장소: 연 그리다 프리미엄 뷔페하우스



☐ **2023년도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장 김원준 선출**



축하합니다!!

2023년도 사)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장 김원준(시인, 부천족보도서관장)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천작가회의를 위해 희망 실어 줄 힘을 기대합니다.

【수상 소식】

☑ 이순정(시인) 제19회 건국문화예술대상 수상



GMG(Genesis Midia Group)

창사 19주년 기념 창세평화상 시상식

일시 :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장소 : 부천문학도서관

건국경제, 건국보훈신문, 건국노인신문 등 공동주관으로 예술문화대상, 의정대상, 언론대상, 경제대상, 보훈대상, 환경대상, 언론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으로서 이순정(시인)님이 문화예술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

☑ 우형숙(시조시인) 전영택문학상 수상

전 부천작가회회장 우형숙 시조집 「괜찮아」로 전영택문학상에 선정

시상식 || 일시 : 2022. 9. 21 수요일

장소 : 목동 대한민국예술인회관



☑ 양정동(시인) 제26회 부천시민시조.시 전통백일장에서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 최인숙(디카시인) 제3회 부천디카시 신인상 수상



이 가을도 혼자라는게
최인숙
어디로 가는지 모를
바람이 분다

- ☐ 황정순(수필가) 제32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노란 밥꽃」
양정동(시인) 제4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수상 「바다가 그리운 저녁」

【새책】

- ☐ 강정규(동화작가) 논픽션 소설 「고난이 은총이었네」 <시와동화> 출간.
강정규 편저. 「한국아동문학가 100인 작가. 작품론집」 <스폰북>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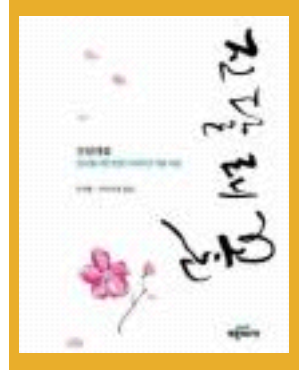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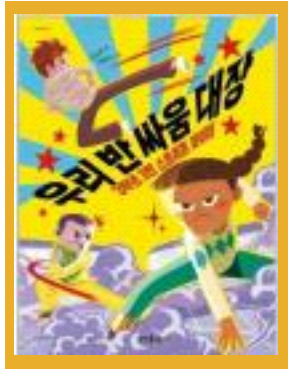
- ☐ 임내영(시인) 동화집 「내 이름이 바뀌다」 <시와동화> 출간.
- ☐ 강향숙(수필가) 수필집 「피어라 동백」 <수필과 비평> 출간.
- ☐ 황정순(수필가) 황정순 수필집 「노란 밥꽃」 <돌길> 출간.



- ☐ 구미정(시인) 시집 「환승」 <시산맥> 출간.
- ☐ 이재학(시인) 시집 「소사천」 <미디어저널> 출간.



- ☐ 양정동(시인) 시집 「바다가 그리운 저녁」 〈산과 들〉 출간.
- ☐ 유타루(동화작가) 동화집 「우리반 싸움대장」 〈강산복스〉 출간.
- ☐ 구자룡. 구미리내 역음 김소월의 「진달래꽃」 〈박물관사랑〉 출간.



【회원 동정】

- ☐ 부천시인협회 김문배시인님께서 부천문학도서관에 책 120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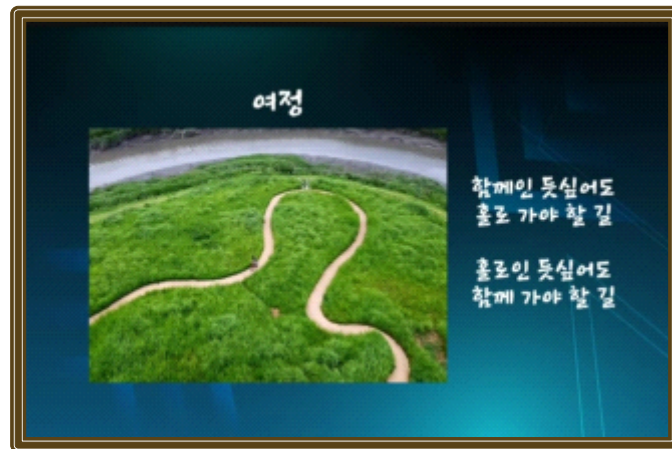
- ☐ 회원 동정란은 회원님들의 알림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 도서 발간, 행사, 교육, 문학관련 세미나, 집안의 경조사 등등 문학과 회원님들의 움직임을 알려주시면 두 배가 되는 기쁨과 열 배가 넘는 힘이 되어주는 문우님들입니다. 더불어 같은 길 걸어가는 여정을 나누고 보태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소소한 이야기라도 함께 나누면서 소소한 행복이 들어오는 부천작가회의이길 바랍니다.
- 개업이나 광고, 축하받은 일, 기타 등으로 후원도 받습니다.

【편집후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식지 6호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바로 회복하지 못해 7호 나오는 상황에서 6호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결호가 생겼다는 것은 당연 제 불찰이라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협회장님들의 협조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면을 채우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따뜻한 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연대’가 답이더군요. 그동안 격려와 힘을 주신 협회장님들과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건필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편집인 최금왕

사) 한국작가회의 부천작가 소식지
2022년 7~12월
통권 06호



양성수(부천디카시분과장)

부천작가회의 소식지 6호 || 2022년 6호
발행인/최현규. 편집인/최금왕. 편집주간/임은주.
편집위원/임내영 김원준 문이령 한성희
발행일 2022년 12월 10일
발행처 14548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706호
(중동. 탑프라자) // cafe.daum.net/bcjakga
전 화 010-8740-3991 // 010-5394-2379

